Factors Affecting Parenting Confidence of Parenting Mothers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Meera Park¹, Nam Joo Je², Jiwon Yoon³

박미라¹, 제남주², 윤지원³

¹ Assistant Professor, Dept.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Korea, jnj4757@cs.ac.kr

² Associate Professor, Dept.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Korea, minerva32@cs.ac.kr

³ Assistant Professor, Dept. Korean Education, Changshin University, Korea, jwyoonyoon@cs.ac.kr

Corresponding author: Nam Joo Je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arenting confidence in parenting mothers. The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pril 13-30, 2021 using online questionnaires for 167 parenting mothers in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WIN/25.0.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difference of variables was analyzed by t-test and one-way ANOVA, and post analysis was analyzed through Scheffe's test.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and the effect on parenting confidence was obtained by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parenting confidence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digital media literacy and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stress. The factors that most affect the parenting confidence of the subjects are parenting stress, followed by digital media literacy, Smartphone usage time 'less than 1 hour' followe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34.6%.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digital media literacy improvement education program to increase parenting confidence and reduce parenting stress. In the future, by adding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variables, it is suggested that various studies be conducted to improve the parenting confidence of parenting mothers.

Keywords: Digital Media Literacy, Mother, Parenting Confidence, Parenting Stress

요약: 본 연구는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67명의 육아맘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5.0. 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및 변수는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s test를 시행하였다. 변수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하였으며,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양육자신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순상관관계가 있었고, 양육스트레스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육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였고, 그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 순이었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34.6%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Received: March 25, 2021; 1st Review Result: May 08, 2021; 2nd Review Result: June 21, 2021
Accepted: July 31, 2021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며, 향후 폭넓은 대상자와 변수를 추가하여 육아맘의 양육자신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핵심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자신감,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증가와 자아실현 욕구로 인해서 과거보다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 대가족 체제에서는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육방법을 배웠으나, 현대의 핵가족구조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배울 기회도 줄고 함께 양육해 줄 지지자원의 부족으로 자녀양육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최근 ‘독박육아’라는 신조어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조력자 없이 홀로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양육의 힘들음을 호소하며 생긴 단어이다[1]. 우리사회는 양육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감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특히 직장여성은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이 낳는 것을 아예 기피하는 경향을 증가시켰다. 자녀를 양육한 경험은 후속출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남편의 양육참여와 부부간의 육아역할 분담, 주중 양육참여시간 및 육아에 대한 정보 습득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다[2].

현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과 어려움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며 타인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한다[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비판적 해독, 창의적 표현, 참여와 소통을 아우르는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3],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높은 스마트사회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활용되면서 중요한 삶의 기술로 인식되었다. 현 시대에 ICT의 활용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4].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편화,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양육문제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5]. 이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놓고는 일이 잘 안 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다[6].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능이 합쳐져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 스마트폰의 사용은 순기능도 많지만 스마트 중독 등의 역기능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7],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 사용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사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스마트폰 중독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과 이용 동기와 관련이 있다[8]. 선행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38.3%가 스마트폰 중독군이었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시간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메신저 사용 및 카페, 블로그활동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 Kim[10]은 양육스트레

스는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양육스트레스가 관계가 있고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양육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낮고, 스마트폰에 대한 만족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머니일수록 양육자신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11]. 양육자신감은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중독과 양육스트레스와 양육자신감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육아맘)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양육자신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양육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가 양육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차이를 규명한다.
- 4)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육아맘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 및 양육자신감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의 모집단은 전국의 육아맘이며, 온라인 육아관련 카페 회원으로 등록된 육아맘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온라인 육아관련 카페 운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 후 승인을 받아 게시판에 모집공고문과 설명문을 게시하였고, 모집공고문에 구글설문지 URL을 포함하였다. 대상자가 모집공고문의 URL에 접속하여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 [12]을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요 분석방법인 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80, 변수 11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23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67명을 초기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첫아이 연령이 1-5세인 육아맘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고, 자녀가 없거나 조사시점에 육아를 전혀 담당하지 않는 엄마는 제외하였다. 총 167부를 수집하였고, 이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 특성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제 특성

제 특성은 선행연구[1]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지역, 첫아이 연령, 가족형태, 자녀 양육형태, 양육비용부담감, 월평균소득, 스마트폰 사용시간의 총 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An[3]이 구성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기회, 능력, 시민성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9문항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각 설문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1 \sim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3.3 스마트폰 이용동기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Yang & Lee[9]의 척도를 기본으로 Bae[13]이 구성한 총 1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Bae[13]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3.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4]이 개발한 PSI (Parenting Stress Index)를 Kim[15]이 수정·보완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3.5 양육자신감

양육자신감은 Pharis[16]의 self confidence scale 13문항을 토대로 Park[17]이 수정·보완한 총 38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매우 자신 없음'(1점)에서 '매우 자신 있음'(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Park[1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2.4 자료수집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C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CSIRB-R2021013)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육아관련 카페의 육아맘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하였다. 연구는 인터넷 육아관련 카페 운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 후 승인을 받아 카페 게시판에 모집공고문과 설명문을 게시하였고, 모집공고문에 구글설문지 URL을 포함하였다. 자료수집은 모집공고문과 안내문에 연구목적과 익명성 보장 및 진행절차 등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모집공고문의 URL에 접속한 대상자가 연구참여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종료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기재된 번호로 소정의 선물을 배부하였으며, 구글설문지는 따로 받아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빈도, 각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측정하였고,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양육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지역은 '경기권'이 63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형태는 부모와 자녀(한부모포함)가 대부분이었고(154명, 92.2%), 자녀양육형태는 '보통 본인(육아맘)이 돌본다'가 69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양육비용부담감은 '약간 부담된다'가 63명(37.7%)로 많았다. 월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58명(34.7%)으로 많았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3시간 이상'이 75명(44.9%)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제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7)

Variable	Categories	n(%)
Area	Seoul	45(26.9)
	Gyeonggi	63(37.7)
	Chungcheong	13(7.8)
	Jeolla	10(6.0)
	Gyeongsang	36(21.6)
First child Age(year)	1-3	109(65.3)
	4-5	58(34.7)
Family form	Couple(including single) and children	154(92.2)
	Couple, children and father-in-law (in-laws)	4(2.4)
	Couple, child and mother of the mother (parent family)	9(5.4)
Child rearing type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mom)	41(24.6)

	Usually the mom takes care of it	69(41.3)
	Take care of it in half and a half	53(31.7)
	Usually the husband takes care of	4(2.4)
Reduced burden of childcare costs	A lot of burden	24(14.4)
	A little burdened	63(37.7)
	Average	56(33.5)
	Not burdened	24(14.4)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10,000)	100-<200	2(1.2)
	200-<300	22(13.2)
	300-<400	45(26.9)
	400-<500	40(24.0)
	≥500	58(34.7)
Smartphone usage time	<1 hour	5(3.0)
	1-<2 hours	27(16.2)
	2-<3 hours	60(35.9)
	≥3 hours	75(44.9)

3.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는 평균 3.6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영역별 평균은 능력영역 4.03점(5점 만점), 기회영역 3.92점(5점 만점), 시민성영역 2.81점(5점 만점) 순으로 나타났다. 능력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규범준수(4.23점/5점 만점), 기회영역에서 가장 높은 하위부분은 이용기회(4.33점/5점 만점), 시민성영역에 가장 높은 부분은 관용성(3.50점/5점 만점)이었다.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평균 3.90점(5점 만점)이었다.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25점(5점 만점)이었고, 양육자신감은 평균 3.76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표 2] 변수의 정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67)

Variables			Mean±SD	min	Max
Digital media literacy			3.68±0.30	2.92	4.49
	Opportunity Area	Opportunity to use	4.33±0.46	2.00	5.00
		Educational opportunities	2.62±0.91	1.00	5.00
	Ability area	Critical understanding	3.94±0.50	2.20	5.00
		Use and expression	3.62±0.71	1.00	5.00
		Compliance with the norms	4.23±0.58	1.50	5.00
	Citizenship area	Forgiveness	3.50±0.64	1.00	5.00
		Participation	2.65±0.77	1.00	4.33
		Publicity	2.44±0.80	1.00	4.67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3.90±0.44	2.56	4.94

Parenting stress	2.25±0.52	1.23	4.00
Parenting confidence	3.76±0.55	2.24	4.95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육아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은 Table 3과 같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74$, $p=.012$),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스마트폰 이용동기는 가족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14$, $p=.046$),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75$, $p=.044$), 사후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 또한 양육비용부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6.74$, $p<.001$), 사후분석에서는 ‘많이 부담된다’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 양육자신감은 첫째자녀 연령이 ‘4-5세’ 그룹이 ‘1-3세’ 그룹보다 높았다($t=-2.01$, $p=.049$). 또한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2.93$, $p=.035$),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Table 3].

[표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스트레스, 스마트폰사용동기, 양육자신감

[Table 3] Digital Media Literacy, Parenting Stress,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and Parent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7)

Variable	Categories	Digital media literacy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Parenting stress		Parenting confidence	
		Mean±SD	t or F(p)/Scheffé	Mean±SD	t or F(p)/Scheffé	Mean±SD	t or F(p)/Scheffé	Mean±SD	t or F(p)/Scheffé
Area	Seoul	3.70±0.34	0.24 (.911)	3.84±0.43	1.43 (.224)	2.30±0.49	1.65 (.162)	3.62±0.52	1.38 (.240)
	Gyeonggi, Etc	3.69±0.31		3.85±0.49		2.19±0.46		3.85±0.48	
	Daejeon, Chungcheong	3.62±0.22		3.84±0.44		2.55±0.71		3.79±0.54	
	Gwangju, Jeolla	3.63±0.24		4.03±0.48		2.30±0.71		3.59±0.64	
	Busan, Ulsan, Daegu, Gyeongsang	3.68±0.30		4.03±0.32		2.18±0.50		3.78±0.66	
First child Age(year)	1-3	3.74±0.30	0.52 (.599)	3.92±0.42	0.89 (.374)	2.35±0.43	1.31 (.193)	3.62±0.48	-2.01 (.049)
	4-5	3.74±0.30		3.85±0.48		2.20±0.50		3.86±0.47	
Family form	Couple(including single) and children	3.67±0.30	1.44 (.240)	3.90±0.44	3.14 (.046)	2.25±0.52	0.85 (.427)	3.74±0.55	1.03 (.359)
	Couple, children and father-in-law (in-laws)	3.94±0.24		4.27±0.22		2.00±0.50		4.03±0.46	
	Couple, child and mother of the mother (parent family)	3.69±0.35		3.63±0.41		2.41±0.56		3.94±0.62	
Child rearing type	Always take care of yourself (mom)	3.70±0.29	0.40 (.747)	3.93±0.40	0.28 (.839)	2.45±0.53	2.75 (.044)	3.79±0.64	0.24 (.865)
	Usually the mom takes care of it	3.65±0.29		3.88±0.47		2.21±0.49		3.75±0.50	

	Take care of it in half and a half	3.71±0.35		3.88±0.42		2.17±0.52		3.75±0.56	
	Usually the husband takes care of	3.69±0.17		4.04±0.59		2.06±0.41		3.55±0.31	
Reduced burden of childcare costs	A lot of burdena	3.72±0.29	0.32 (.810)	4.11±0.38	2.45 (.065)	2.64±0.61	6.74 (<.001) a>b,c,d	3.62±0.72	0.77 (.511)
	A little burdenedb	3.66±0.29		3.85±0.44		2.27±0.48		3.76±0.57	
	Averagec	3.68±0.32		3.84±0.45		2.10±0.48		3.82±0.46	
	Not burdenedd	3.70±0.34		3.91±0.41		2.19±0.43		3.73±0.52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100-<200	3.86±0.30	1.20 (.309)	4.11±0.31	0.80 (.526)	2.11±0.16	0.42 (.790)	4.01±0.05	0.42 (.794)
	200-<300	3.56±0.32		3.95±0.48		2.37±0.49		3.67±0.73	
	300-<400	3.69±0.23		3.95±0.44		2.27±0.56		3.71±0.58	
	400-<500	3.70±0.29		3.90±0.40		2.23±0.44		3.78±0.36	
	≥500	3.70±0.35		3.82±0.45		2.21±0.56		3.80±0.58	
Smartphone usage time	<1 hour	3.40±0.17	3.74 (.012)	3.56±0.38	2.34 (.075)	2.16±0.59	1.57 (.199)	3.17±0.76	2.93 (.035)
	1-<2 hours	3.80±0.34		3.90±0.45		2.21±0.51		3.92±0.69	
	2-<3 hours	3.62±0.26		3.82±0.46		2.16±0.43		3.78±0.47	
	≥3 hours	3.70±0.31		3.98±0.41		2.35±0.57		3.71±0.53	

3.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 상관관계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폰 이용동기, 양육스트레스, 양육자신감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양육스트레스($r=.23$, $p=.002$)로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스마트폰 이용동기($r=.32$, $p<.001$)와 양육자신감($r=.42$,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자신감($r=-.48$,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67)

	Digital media literacy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Parenting stress	Parenting confidence
	r(p)			
Digital media literacy	1			
Motivation for using smartphone	.32(<.001)	1		
Parenting stress	-.23(.002)	0.02(.719)	1	
Parenting confidence	.42(<.001)	0.03(.659)	-.48(<.001)	1

3.5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양육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첫아이 연령, 스마트폰 사용시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양육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첫아이 연령,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91-.96으로 기준치인 0.1 이상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3-1.09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Test 결과 $d=2.187$ 로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었다.

양육자신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beta=-.417$, $p<.001$), 그 다음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beta=.303$, $p<.001$), 스마트폰 사용시간 ‘1시간 미만’($\beta=-.148$, $p=.022$) 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4.6%이었다($F=30.31$, $p<.001$)[Table 5].

[표 5] 양육자신감의 회귀분석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Parenting Confidence (N=167)

	B	SE	β	t	p
(Constant)	2.758	.501		5.50	<.001
Smartpho-ne usage time ‘<1 hour’	-0.482	.208	-.148	-2.31	.022
Parenting stress	-0.444	.069	-.417	-6.43	<.001
Digital media literacy	0.548	.118	.303	4.62	<.001
$R^2=.358$, $\text{Adj } R^2=.346$, $F=30.31$, $p<.001$					

*Dummy variable

4. 결론

본 연구에서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및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양육자신감에는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양육스트레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 결과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여 힘들어할 때(양육스트레스),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다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양육에 대한 교육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이나 신생아 시기와 관련된 교육이 많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그 시점에 필요한 양육 관련 교육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18]. 육아를 하는 경우 아이와의 외출이 쉽지 않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시기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위해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COVID-19로 인해 대면교육이 어려운 현재,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습득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양육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때 단순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활용하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전반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 육아방식(디지털 페어런팅; Digital parenting) 적용이 양육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19],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할 수 디지털 육아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맘의 양육자신감을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6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제한이 있다. 향후 폭넓은 대상자와 변수를 추가하여 육아맘의 양육자신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5. 감사의 글

This research was conducted as a research projec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NRF-2018R1C1B5043387).

References

- [1] M. J. Kim, S. J. Park, Parenting Stress, Spouse's Involvement in Parenting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Small-Medium Sized Hospital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Education and Research*, (2017), Vol.2, No.1, pp.53-60, DOI: <https://dx.doi.org/10.21742/ijaner.2017.2.1.10>
- [2] E. K. Kim, The Effect of Marital Relationship on the Second Childbirth Inten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14), Vol.18, No.4, pp.199-217, UCI: G704-001334.2014.18.4.003
- [3] J. I. Ahn, A Study on the Age Difference of Digital Media Liter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2013), Vol.7, No.1, pp.1-21, UCI: G704-SER000003049.2013.7.1.006
- [4] M. J. Lee, B. Young, Consumer Problems in Ubiquitous Society and Its Implication -The Cases of IT-User Damage-Informatization Policy, (2008), Vol.15, No.2, pp.62-76, UCI: G704-000552.2008.15.2.003
- [5] D. G. Seong, Media Use, Social and Cultural Gap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eutralization Issues,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08), pp.8-79.
- [6] J. H. Kim, M. S. Kim, R. K. Hong, J. W. Ko, The Effects of User and Social Characteristics on Continuous Use Intention among Corporate Mobile SNS Users - With a Focus on Extended Technological Acceptanc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Smart Business and Technology*, (2019), Vol.7, No.2, pp.55-60, DOI: <http://dx.doi.org/10.21742/ijst.2019.7.2.06>
- [7] B. S. Young, The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nd Frequency of Married People and Its Effect on Marital Intimacy: Adult Attachment Regulation Effect, *Sun M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8] J. M. Yoon, J. S.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Multidimen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f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2019), Vol.11, No.3, pp.151-174, DOI: 10.36431/JPE.11.3.8
- [9] I. Y. Yang, S. Y. Lee, Exploring smartphone early adopters categories on the basis of motiva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1), Vol.55, No.1, pp.109-139, UCI: G704-000203.2011.55.1.008
- [10] J.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1] E. J. Hyun, E. M. Park, M. H. Cho Mary, T. Y. Kim, Relationship among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Levels, Maternal Depression and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3), Vol.33, No.5, pp.181-205, DOI: 10.18023/kjece.2013.33.5.008
- [12]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 Vol.41, No.4, pp.1149-1160, DOI: 10.3758/BRM.41.4.1149
- [13] S. Y. Bae, The smartphone usage motivation and frequency of married people and its effect on marital intimacy: adult attachment regulation effect, *Sun M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 [14]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 : Professional manual*, (3rd ed), Odess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1995)
- [15] D. H. Kim, Comparative Study of Parenting Stress between Mothers of Normal Neonate and Low Birth Weight Neonate, *Yo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1997)
- [16] M. E. Pharis, Age and sex Difference in Expectations for Infants and the Parention among Couples in a First Pregnancy and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octoral dissertation*, (1978)

- [17] M. S. Park,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fidence of Infant Caring for First-born Mothers in Single-parent Room and Single-mother and Child Room, Korea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 [18] M. Barimani, A. Vikström, Successful Early Postpartum Supportlinked to Management, Informational, and Relational Continuity, *Midwifery*, (2015), Vol.31, No.8, pp.811-817. DOI: 10.1016/j.midw.2015.04.009
- [19] H. S. Jeong, Let's Start, Digital Parenting, Our School, (2017)